

# 제11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

2013. 5

## 마곡사업추진단 (마곡사업담당관)

작성자

마곡사업담당관

담당: 조병훈  
(☎2133-1518)

팀장: 김인숙  
(☎2133-1512)

과장: 이기완  
(☎2133-1510)

# 「제11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」 회의록

## 〈회의개요〉

- ◆ 일 시 : 2013. 5.30(목) 14:00 ~ 18:20
- ◆ 장 소 : 영상회의실(서울시청 본관 6층)
- ◆ 참 석 : 정책심의위원 10명
  - 당연직 위원(4명) : 행정1부시장, 기획조정실장, 도시계획국장, 강서구 부구청장
  - 위촉 위원 (6명) : 박진형, 김형식, 이동근, 윤종언, 김용직, 신창호 위원
- ※ 마곡사업추진단장 배석
- ◆ 안 건(1건)
  - 〈심의안건〉
    - 제2차 일반분양 협의대상자 선정 (17개 기업, 18개 사업계획)
- ◆ 심의결과
  - 14개 기업(15개 사업계획) 협의대상자 선정
    - (주)한보 이앤씨, 희성전자 컨소시엄, (주)크레스라이트, (주)케이케이디씨,  
(주)엔터기술, 대우조선해양(주), 패션인사이트(주), (주)원봉, 광성전기산업(주),  
(주)상보, (주)아워홈, 하이플러스카드컨소시엄, (주)유템, (주)케이티앤씨
  - 부지위치변경 협의가 필요한 1개 기업 평가유보
    - (주)소룩스

## □ 주요내용

### <심의안건 : 제2차 일반분양 협의대상자 선정>

- 간사 : 안건설명
- 위원장
  - 심사는 4회에 걸쳐서, 4~5개씩 묶어서, 프레젠테이션을 받고,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평가를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

#### 1번부터 4번까지 발표후 평가

- 000 위원
  - 기업1 주력 제품인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PC의 플립커버나 북커버라고 하는 케이스를 우리가 InT라고 이해할 수 있는지?
- 기업1 설명자
  - 지금 현재로서는 InT의 부속상품 분야임.  
저희가 마곡지구를 통해서, 이것을 실질적으로 기능성능이 보장되는 형태. 이런 커버의 키보드가 부착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꽂히는 태블릿 PC의 기능성능을 확장시켜 주는, 발전시키는 것.
- 000 위원
  - 원자재의 pc, abc하고 pu에 나노를 추가한다는 것인지?
- 기업1 설명자
  - 두께를 얇게 하고, 그 얇은 상황에서 기능 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, 결국은 소재 쪽으로 접목이 되어야 함.
- 000 위원
  - 기업3은 저기 부지를 사서 건물 지으면, 회사의 경영에 큰 이상은 없는지? 매출에 비해서 굉장히 사업이 큰 것 같은데.
- 기업3 설명자
  - 이익 유보금을 갖고 있고 채무가 하나도 없어서 여력은 충분함.

- 000 위원
  - 기업2 굉장히 큰 대기업인데 동반성장 관련 계획이 부족하다는 생각
- 기업2 설명자
  - 그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하겠음.
- 000 위원
  - 공공성 확보도 마찬가지. 총괄 MA가 있으니까, '그때 충분히 받아들일 자세를 갖고 계셔야 되겠다.' 생각함.
- 기업2 설명자
  - 알겠음
- 000 위원
  - 기업4는 1인당 연구시설면적이 과하다는 느낌.
- 기업4 설명자
  - 장비가 많고 광학 측정 등을 위해서는 상당한 면적이 필요함
- 000 위원
  - 생산과 R&D를 같이 할 계획인지?
- 기업4 설명자
  - 개발 연구는 따로. 생산은 부천에서 계속할 것.

5번부터 9번까지 발표후 평가
------------------

- 000 위원
  - 기업5는 왜 두 개 필지를 신청하였는지
- 기업5 설명자
  - 생산시설을 다시 갖추려는데 한 필지는 부족해서 두 개 필지 신청
- 000 위원
  - 어떤 생산시설인지.
- 기업5 설명자
  - 현재 요오드화칼륨을 생산중.

- 000 위원
  - 요오드화칼륨을 여기에서 생산하려는 것인지.
- 기업5 설명자
  - 요오드화칼륨은 기존 시설이 있기 때문에, 여기서는 하지 않고, OLED 쪽으로 계획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아직 말씀드리기 곤란함.
- 000 위원
  - 기업7 연구시설 비율은 자체블록 비율? 아니면 전체 비율?
- 기업7 설명자
  - 각각임.
- 000 위원
  - 공공기여 방안 관련 제시된 것은 아직 없는지?
- 기업7 설명자
  - 문화시설의 개방부분은 나와 있고 구체적인 협상을 통해서 이행중임
- 000 위원
  - 기업6은 최근에 상폐가 된 이유는?
- 기업6 설명자
  - M&A로 경영진이 두 번 바뀌는 과정에서 횡령이 상폐에 가장 큰 요인이 되었음. 현재는 창업주가 다시 들어온 상태.
- 000 위원
  - 신용평가등급, 영업이익도 불리하고 부동산 경기도 침체인데 재원조달 계획은?
- 기업6 설명자
  - 재원은 2개 건물을 팔 계획. 올해부터는 흑자 예상.
- 000 위원
  - 기업9는 왜 영업이익 이렇게 낮은지?
- 기업9 설명자

- 전통조명이 노동집약적 산업이라, 일정 시점이 되면 가격이 하락함. 그래서 여러 가지 신사업에 계속해서, 연구개발에 주력중임.
- 000 위원
  - 기업9는 부지위치 변경을 요청했는데, 변경 시 GeT 클러스터 쪽으로 옮길 의사는 없는지?
- 기업9 설명자
  - 가능하다면 요청한 위치(BiT 클러스터)로 변경할 것을 선호함.
- 000 위원 등
  - 평가유보 후 부지위치 변경 협의 후에 평가하는 것이 나올 것 같음.
- 위원장
  - 그러면, 기업9 신청부지는 이번에 평가하지 않고, 우선 위치변경에 대한 협상을 먼저 하고 나중에 평가하기로 하겠음

10번부터 14번까지 발표후 평가

- 000 위원
  - 기업13은 최근 3년간 매출 급감. 마곡 입주에 영향은?
- 기업13 설명자
  - 일시적인 상황으로 전혀 영향 없음. 기존의 국내 건설사에 매출 대신 최근 3년 동안에는 LED 쪽에, 해외 쪽에 치중을 하면서 국내영업이 둔화된 부분임.
- 000 위원
  - 기업14는 DSSC 수율이 얼마 정도?
- 기업14 설명자
  - 5.9% 정도. 올해에 DSSC 국책과제를 수행 중으로 완료시점인 2017년에는, 실리콘패널 기반의 태양광 전기보다 훨씬 높을 것.
- 000 위원
  - 상용화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듯

- 기업14 설명자
  - 현재 극복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으며 애플리케이션도 많이 개발중.  
궁극적 방향은 빌딩 내에, 빌딩자체로 하는 태양광 발전기.
- 000 위원
  - 기업11은 마곡에 꼭 와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? 경기북부 지역의 영세한 섬유단지와의 연계가 필요한 이유는?
- 기업11 설명자
  - 이번에 해외에 공장을 만드는데, 접근성 때문. 경기 북부지역이 영세하지만 환편직물은 신제품이나 가공기술이 상당히 앞서 있기 때문.
- 000 위원
  - 기업10은 국내 시장점유율이 몇%나 되는지?
- 기업10 설명자
  - 정확한 국내시장 점유율 산출 곤란. 시장 내에서는 2위 정도
- 000 위원
  - 기업12 영업이익률이 낮은 이유는?
- 기업12 설명자
  - 연구개발비에 투자하는 금액자체가 20억이 넘음.
- 000 위원
  - 판매방식은 동종업계와 동일?
- 기업12 설명자
  - 내수 쪽은 동일하고요. 오프라인 쪽으로는 도매방식으로도 판매중  
현재 70% 이상이 수출에서 매출이 나오는 상태.
- 000 위원
  - 기업13은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매출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 
외자유치계획이 실현가능할지?
- 기업13 설명자
  - 실현가능하다고 봄. 매출감소 일부는 엔저로 인한 것이며, 미국의 시

장이 기술유치에 관심을 보인 바 있음.

15번부터 19번까지 발표후 평가

- 000 위원
  - 기업19 이자비용이 많음 은행권 차입이 지금 얼마?
- 기업19 설명자
  - 은행권 차입이 400억 정도 있음. 사옥 매각하면 근거당은 없어짐
- 000 위원
  - 매각이 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신 것.
- 000 위원
  - 기업15 계획중인 공공기여 방안은?
- 기업15 설명자
  - 부지매입 계획중. 기타 방안은 시와 면밀히 검토하겠음.
- 000 위원
  - 대기업으로서의 충분한 책임 필요
- 기업15 설명자
  - 알겠음
- 000 위원
  - 기업16 컨소시엄 구성원 간의 사업연관성은 별로 없지 않나?
- 기업16 설명자
  - 사무실 공동으로 활용하는 부분을 1차적으로 진행
- 000 위원
  - 자본 연계만 되어 있는 회사고, 실제로 인접해서 같이 사무실을 쓴다 하더라도, R&D에 시너지 효과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느낌
- 기업16 설명자
  - 현재로서는 그럴 수도 있으나, 점차 찾게 될 것임
  - 에너지매니지먼트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, 스마트배터리, 배터리도 인



텔리전트한 지능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IT 테크놀로지가 접목.

○ 000 위원

- 기업17은 주사업이 단말기 판매이고 매출 대부분은 유통 사업?

○ 기업17 설명자

- 유통 사업이 가장 큼. 농수산물 쪽에 가장 역점을 뒀서, 스마트폰으로 왜곡된 유통구조를 직거래형태로 개선 추진중으로서, 현재 상용화 전 단계. R&D 마곡에서 사업화까지 염두에 두고 신청함.

○ 000 위원

- 기업15는 미래의 식품사업과 관련된 연구 계획이 있는지?

○ 기업15 설명자

- 정부정책에서 고부가가치 소재개발, 그다음에 ATT에서 헬스 테크놀로지, 녹색식품, 전부 큰 과제임.

고부가가치 쪽에서는 김치 유산균 항균물질하고 기능성물질.

헬스 테크놀로지 쪽은 실버에 과제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음.

녹색식품 쪽은 김치의 폐기물이나 부산물관련.

○ 간사

- 평가집계결과 발표

○ 위원장

- 기업9는 부지 위치 변경 문제를 재협의한 후에 평가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음

- 핵심평가항목에 대해서 부적정 의견이 없으므로, 14개 기업 15개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, 평가 충족 기준을 충족하였기 때문에, 협의대상 기업으로 선정함을 의결하겠음.